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99호 현대불교
2010년 9월 1일(음 7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진짜로 자기 근본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었지만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 몇 명에서 같이 공부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일 지금 혼동되는 것이, 저 자신도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겨우 조금 아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잘못된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큰스님: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시는 그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관하는 것만 일러 주세요. 여러 말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우환이 있거나 애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너만이 가난치 않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못났으면 좀더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끔, 물리가 터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지 않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 주면 그냥 자기가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되더라.' 몇 번 그렇게 해 보고 그게 되더라 이러는 건 알았는데, 또 큰 거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유죠. '내가 조그마한 건 이렇게 되는데 큰 거는 안될 거다. 요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큰 거를 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요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업을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 고통이 오나?' 요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업 불을 지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서 입력이 된 것을 모두 지워 버리면 되는 거지, 그 업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아, 무명천(無明天)을 넘어서라.' 이러니까 이 무명천이 어디 있나 하곤 그냥 찾아다니다가 하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 불사천(不死天)에 가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그냥 천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무명천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 불을 지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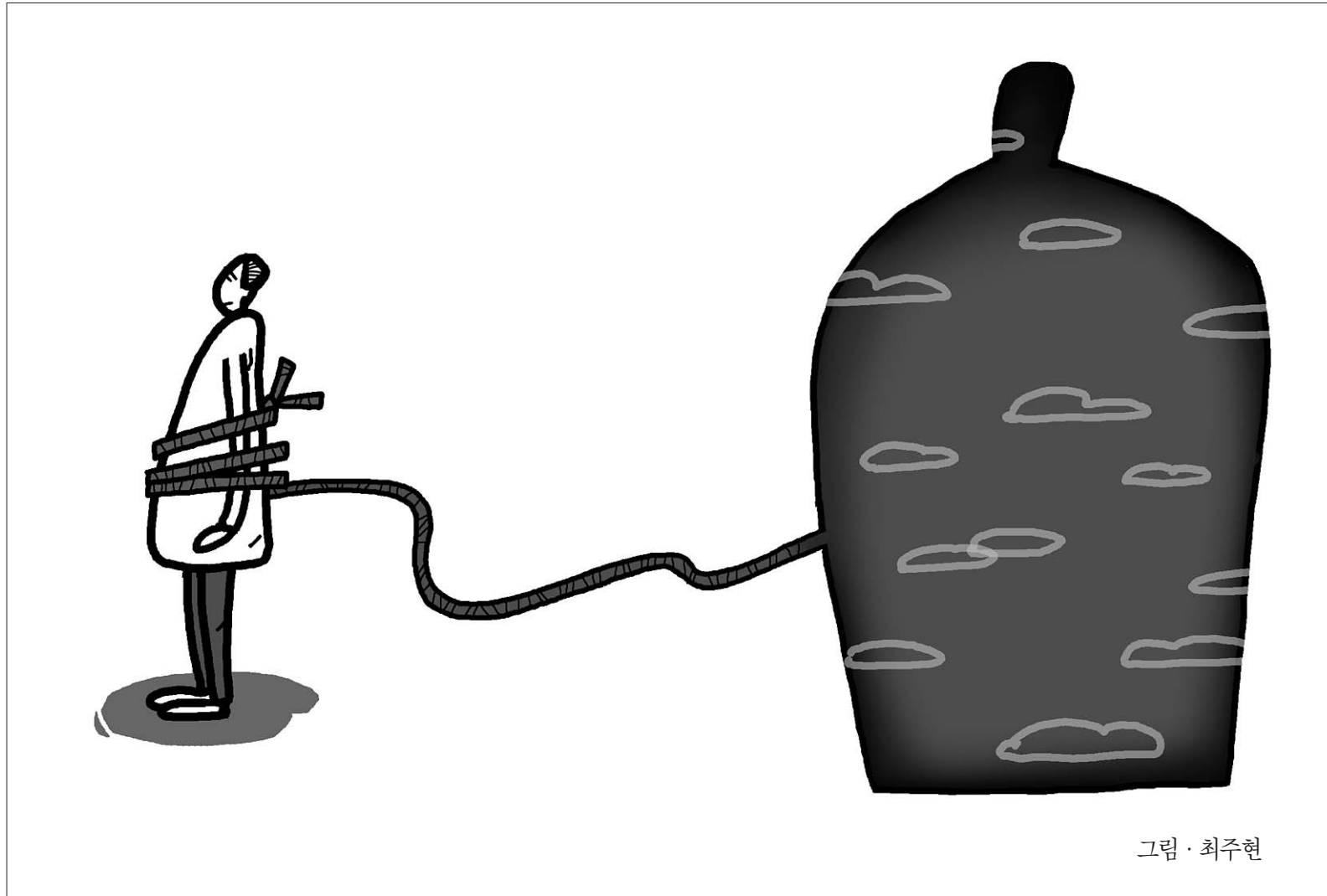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 내가 구멍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 빠져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구멍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멍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조절해 나가면서 자기를 믿고 찾아라 이거죠.

질문자(2남):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스님: 나는 그래서 이날까지요. '내가 잘 되게 해 주시오.' 하고 손을 꼭고 빌어 본 예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그런 걸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과 더

불어 친구가 된 거지, 그것을 무서워서 피했다면 귀신들의... 여러분, 귀신들이 어딴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귀신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됐고 이런 거죠. 다. 그리고 조상의 탓을 하고요. 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모두가... 무명천이 아예 없어요.

질문자(3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지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주인공 잡기가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려운데, 스님께서는 늘 '말려라, 관해라' 하시는데 좀더, 주인공을 쉽게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네, 그러죠. 하하하... (대중 웃음) 지금 주인공이 안 계시다면 맥은 지금 송장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천차만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놈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지만 역력하게 말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작용하고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음'과 그냥 '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 알면, 외부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되죠. 사대 성인들이 모두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너부터 알아야 큰 공덕이 되지, 너를 내가 모르고는 절대 공덕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공덕이란 뜻은,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바로 나 하나가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한자리를 할 때에 비로소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3남): 공부하다 보니까, 놓아야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자식놈이 눈앞에서 깔장거리는 데는 영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집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자식놈의 물질적인 욕심이 까딱까딱하는 거지, 허허, 마음이 나와서 그렇게 까딱까딱합니까? 아니, 그 욕심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까딱까딱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 너 까딱거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거기가다 놓으면 슬며시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욕심은 움추러질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의 놀음이니까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지, 욕심을 잡으려고 하거나 말로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가서 안 들어오든 나가서 공부를 안 하든 그게 걱정이 안될 만하게 원력이 서야 걱정이 안되죠. 권투선수가 권투 실력이 아주 극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상대가 누가 온대도 걱정이 안되죠. 만약에 그게 설익었으면 걱정이 되죠. 온통 그냥 떨리고, 부자연스럽고, 무겁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설익지 않았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개네들은 잔잔하게 그냥 돌아가요. 또, 걱정이 없는 까닭에 그 마음하고 다 이렇게 통하니까요. 그러니 사는 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 하면 걱정이 되지 어찌 안되겠습니까? 걱정이 돼도 바깥으로 온통 이렇게 풍기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익은 사람들은 안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부지런히 욕심도 뺀, 그냥 걱정 없이 뛰면

▶ 26면으로 계속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임원 공고



종 정 운허 연화 대종사
승정 원장 무여 정각

법률고문 최낙균 변호사(법학박사)

종회의장 무진 해암
호법원장 무불 월산
선원장 무애 구암
비구니회장 무찰 현준

총무원장 무학 보월
교육원장 무허 해월
포교원장 무휴 가산

사정원장 무일 마하
문화원장 무상 도산
비구니원장 무행 동성

☆ 본종에 임종 서류는 본산과 총무과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본종에 임종시 일체 공과금을 면제합니다.
임종문의 : 본산 양산 대인사 (055-375-2076) / 총무원 포항 구운사 (054-231-3101)
☆ 승려가 되고자 하는 남녀 지망생을 접수합니다.

불기 2554년 8월 22일

(사)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